

###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결산 <상>

성과



3일 막을 내린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산업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었갈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쉽고 재미있게... 참여형 전시로 대중과 소통

공공디자인 영역 확장  
지역산업과 연계 성과

폐막과 함께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올해 5회째 행사를 치른 디자인비엔날레는 미학과 담론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이전 행사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실용적 가치와 산업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관람객들에게 쉽고, 친숙한 문화행사로 한 걸음 다가갔다. 다양한 산업화 프로젝트와 연계하면서 국제 디자인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다. 바로 '비엔날레'의 정체성이다. 디자인비엔날레는 창설 당시 "디자인전시회나 페어들과 달리 디자인 미적·실용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관례를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기획을 한다"라고 기본 방향을 정했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이수도 없었고, 임팩트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행사를 풀어내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3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59일간 디자인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22만명으로 지난 2011년 25만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재단은 순천 정원박람회의 여파로 학생 관람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1년 9만7000명인 학생 관람객은 올해 6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유료 관람객 17만5000명, 무료 4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디자인센터와 손잡고 처음으로 함께 치른 올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관람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다. 전시 측면에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디자인 작품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꾀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쉽고 재미있는 전시' '가족 단위 문화 체험의 장'이라는 평가 속에서 '퐁다공 어린이집' '즐거운 에너지' 등 참여형 전시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기획 단계부터 산업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양한 산업화 프로젝트가 시도된 점도 올해 행사의 두드러진 점이다. 즉 아이디어 도출, 제작, 유통 등 상품화 전 과정을 고려해 전시를 기획·구현한 것.

특히 남도 농업과 담양 대나무 등 남도 자산을 활용한 디자인과 마케팅이 눈에 띄었다. 조순대 유니버설패키지디자인센터는 '광주·전남 9대 명품 쌀 포장'을 통해 광주·전남 9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쌀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고품격 상품'으로 탈바꿈 시켰다.

또 담양 대나무를 친환경·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산업화로 연계시킨 'RCA 디자인 워크숍'의 성과도 주목된다.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등반이 없는 의자' 등 13개 결과물이 디자인 출원 신청을 마쳐, 상품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나무를 소재로 한 벤치' 등 다양한 전시 작품에 대한 판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공공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시도도 돋보였다. 광주의 평범한 택시 기사 유니폼, 거리마다 즐비한 쓰레기봉투 등 시민 사회와 가장 밀접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소외됐던 공공의 영역에 디자인을 입힌 것이다. 디자인비엔날레는 특히 택시기사 유니폼과 광주 5개구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광주시는 시범 운영을 검토중에 있다.

의재미술관에서 진행된 '9월에 매화'전도 광주의 품격 있는 공예품을 개발해 선보였다는 평가다. 한국화가 허달재씨의 작품 소재를 이용해 30여명의 공예가들이 선보인 나전, 옷칠, 한복, 섬유, 색칠 누비 등은 전시 기간 꾸준히 판매됐다.

이유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는 디자인이라는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고 유통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구현됐다"며 "농업과 남도의 맛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이를 알리는 마케팅 효과와 산업화로의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까미유 끌로델'을 기억합니다

'광주여성영화제' 6~10일 G시네마

선착순 댓글 무료관람 20여편 상영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주여성영화제는 영화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행사다. 그래서 작지만 알찬 영화제로 꼽힌다. '내 이름을 불러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린다.

올해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20여편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이스라엘과 독일의 합작 영화 '보이지 않는'이다. 20년전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간 사건 피해자인 싱글맘 방송국 편집자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좌파 활동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폐막작은 다큐멘터리 '노라노다'. 한국 패션계의 살아있는 역사인 팔순의 디자이너 노라노가 젊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자신의 패션사를 정리하는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상영 후에는 김성희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갖는다.

이자벨 아자니의 '까미유 끌로델'을 기억한다면 중년의 졸리에 비노쉬가 열연하는 '까미유 클로델' <사진>에 눈길이 갈 것 같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동화책 '꽃할머니'에 얽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권효 감독의 '그리고 싶은 것'. 성미산 마을 이야기를 담은 '출추는 숲'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광주 지역 여성 감독들의 단편 '김밥', '현재가 되어 버린 기억' 등을 만날 수 있는



'단편 섹션'도 눈에 띈다.

부대 행사로 '화차'의 변영주 감독 등이 참여하는 '2013 전국 여성영화 컨퍼런스'(8일 오후 4시)와 여성영화인의 밤(8일 오후 7시) 행사도 열린다.

시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cafe.dau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영작별로 선착순 댓글을 달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515-6560. /김미은기자 mekim@

## 가을밤 오보에

6일 송애리 귀국 독주회

송애리 <사진> 오보에 귀국 독주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향 오보에리스트로 활동하는 아버지 송진홍씨의 영향으로 오보에를 시작한 그녀는 경희대 재학중 독일 예센 폴크방 국립대학을 유학, 최고학점으로 졸업했으며 이후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악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독일 폴크방 앙상블 단원으로 연주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9년만에 귀국,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알비니의 '협주곡 D단조', 도라티의 '오보에를 위한 다섯개의 소품', 파스쿨리의 '도네제티 오페라'라 파보리타' 주제의 의한 협주곡, 뵐랑의 '피아노와 바순 오보에를 위한 트리오'다. 바순의 최준성, 피아니스트 이지혜씨가 함께 연주한다. 문의 011-601-810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예술단 노조, 임협 마무리

광주시와 시립예술단노조가 10개월여 갈등을 빚어온 임금협약을 마무리 지었다.

광주시는 "시립예술단노조와 2012년, 2013년 임금협약을 일괄 타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립예술단 노조는 2012년 임금을 동결하며, 2013년에는 평균 7.9% 인상기로 합의했다. 또 예능등급은 9등급 체계에서 1등급을 줄인 8등급으로 조정했고, 논란을 빚었던 정기 평정은 2014년 초 '평정제도개선TF팀'을 구성해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시립예술단노조는 광주시와 지난 2월14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예술단 무등급제 등을 주장하며 실기 평정을 거부해왔다. 이번에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시립예술단노조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정기 평정에 조건 없이 참여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모집

광주시는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휘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학교 등에 재직 중인 자는 당해 기관단체장의 결인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응모 서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gjart.net)에서 내려받아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사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13-836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www.hong79.com** ☎ 1899-0240






헤드기능 5개 코너소파 195만원
리콜라이너 2개 +헤드기능 3개
5인 이태리 무광대리석 식탁 195만원
앤틱식탁 15종류